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 東 守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 3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 8 1 3 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9807
967—8133 사무실

生藥材 系統出荷 도유 共販場活性化

協會수권태세 萬全으로

生産會員 의욕고취 바람직

協會는 設立한지 16年附帶事業으로 生産會員을 위한 共同販賣體인 中央共販場을 설치한지 11년째, 그러나 아직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數名의 任員들이 意慾에 찬 希望만으로 經營에 부딪쳐 보았으나 資金과 人材와 相對的인 非協調로 運營合理化를 이루지 못하고 今日에 까지 發展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다행으로 지난 7월중순 이후 新任體制로 공판장을 인수 새로운 運營基盤을 造成中에 있기 때문에 不遠자리가 잡힐 것으로 生産者들은 現在 찾아드는 生産者들을 위한 先代金 준비와 物動量에 대한 소비처를 개척하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제 基盤의 造成過程과 병행하여 과거의 불신과 不實原因을 과감히 분석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담보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중앙공판장의 과거 數年間의 침체상태를 分析해보면,

첫째 : 합리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둘째 : 荷主들은 항상 早期 清算을 원할뿐 協會기본운영 기능을 外面하고 있었다.

세째 : 各 地方居住 分事務所長들이 自體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組織活用을 外面하고 系統出荷 誘導에 힘을 쓰지 않았다.

네째 : 荷住들에 대한 先代支佛이 미미하고 物件販賣후에도 代金支拂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다음 出荷를 기피하는 상태였다.

다섯째 : 協會 共販場으로서 全般的으로 접대하는 요령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上記와 같은 諸결점에 의하여 불신풍조가 만연해 가면서 分事務所長들의 意慾저하와 아울러 系統出荷에 대한 組織活用의 意味를 잃게 됨으로서 一般生藥生産者와 會員들의 去來實績이 날로 감소되어 오늘과 같은 명맥만을 겨우 이어가는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새로운 陣容과 資金에 의하여 과거 결함을 과감히 是正하고 한짝의 物件이라도 去來를 희망하는 荷主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지 않으면, 協會 共販場으로서의 진가를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協會와 共販場은 一般生産者와 生産會員을 위한 단한 각오와 자세로 受權態勢를 준비하고 있음으로 各級分事務所長 및 會員은 協會를 다시 신뢰하고 組織生活과 共生共存의 主人意識으로 한짝의 물건이라도 系統出荷를 誘導하여 유일한 생약단체의 會勢를 伸張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질서유지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힘써야하겠읍니다. 〈편집부〉

'85 제2차 理事會召集

◉근 거=協會定款 제14조에 依據
◉대 상=協會各理事 및 監事 (별도 통지서 발부)
◉개최일시=1985년 8월 30일(金) 13시
◉개최장소=協會本部 會長室
◉의 안=▲協會諸懸案問題 討議 및 議決 ▲期間中 承認 分事務所의 심의 인준 폐쇄 및 해임 分事務所 심의 인준.
◉其他 行政事項
※參席이 不可能할시는 별도첨부한 委任狀 서명후 송부할 것.

1985년 8월 20일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會長 朴 萬 鍾

人事發令

〈任〉

▲江原 인제군 사무소장=이규섭 85년7월19일부 承認.
▲忠南 청양군 사무소장=조병섭 85년7월29일부 承認.
▲全南 목포시 사무소장=박순규 85년7월30일부 承認.
▲慶南 창원시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김은중 85년 8월8일부 承認.
▲慶南 통영군 사무소장=김계관 85년8월8일부 承認.

〈免〉

▲부산직할시 금정구 사무소장겸 공판장장=최수대 85년8월8일부 解任.

「承認變更」

〈免〉 전북 고창군 사무소장=신현진을

〈任〉 충남 부여군 사무소장=신현진으로 85년7월24일부 承認.

〈免〉 경남 통영군 사무소장=이영갑을

〈任〉 경남 충무시 사무소장=이영갑으로 85년8월8일부 承認.

農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건강과 보리혼식

매미소리 한창인 여름한 나절 푯푯한 흙내음이 스쳐간 시원한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소쿠리에 담아주던 보리밥 냄새에 매달아 둔 보리밥을 이가 시린듯한 차거운 우물물을 길어다 하이얀 주발에 담아 놓고 누런된장에 풋고추 여나무개를 찍어 씹기도전에 훌훌 넘겨버리던 그 시절의 향수가 그리운 계절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리쌀은 쌀과 더불어 중요한 식량자원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과거 국민들의 식생활 양식이 쌀, 보리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때에는 보리생산과 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리쌀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보리쌀을 식용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수도 없었으나 최근에 보리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고 또한 재고마저도 누적되어 소비에 고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70년 이후 식량으로서의 보리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여 년간 1인당 소비량이 1970년 37·3kg에서 1983년에는 9·5kg으로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11,500천석에서 4,870천석으로 줄어 전체 양곡중보리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0%에서 5·2%로 낮아졌으나 보리쌀은 우리나라 주곡의 하나로 식량공급면에서 뿐만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온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소비량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줄어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된 보리쌀의 영양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쌀밥이나 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쌀에 보리를 혼식코면 더욱 좋아진다는 얘기다.

식품연구학자에 따르면 보리중의 섬유질은 혈청내의 과다한 콜레스테롤과 납 카드뮴등 중금속을 흡착해 서 몸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만약 동맥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붙게 되면 동맥의 내경이 좁아져서 인체가필요로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지못하게 된다.

섬유병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긴 세월동안의 식생활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병조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의 부도가 아니라 10년 부도가 건강을 망치는 것이다.

또한 보리는 쌀보다 칼슘은 약 2배, 철분은 약 1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일반적인 영양부족증인 빈혈과 산성체질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보리는 영양성분 이외에도 2·6%나 되는 섬유질이 들어 있어 위의 부담을 적게하고 장의 운동을 도와 소화가 잘되게 하는 작용이외에도 소화기관에서의 유익한 장내 세균이 왕성하게 번식토록 한다.

보리혼식을 하면 영양이 뚜렷하게 좋아진다. 쌀밥에 보리를 20%정도 혼합하면 같은 양의 쌀밥에비해 단백질은 1·2배, 지방은 1·75배로 늘어난다.

그뿐 아니라 각 식품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들의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식은 한가지 식품에 없기 마련인 그 식품의 최소성분을 다른식품이 보강시켜 영양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보리혼식의 가장 커다란 영양학적 잇점은 쌀에 부족한 철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리가 장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보리의 섬유질은 우리의 위와 장에서 쉽게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나트로소아민을 흡착,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암효과는 동물실험을 통한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쥐에게 암을 이식시켜 종양의 체중에 대한 무게를 비교한 결과, 쌀을 먹인쥐는 몸무게의 11·6%나 되었는데 비해 보리를 먹인 쥐는 4·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보리를 이용 가공한 식품으로는 보리국수, 보리빵, 보리청량음료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할맥, 즉 건강보리쌀의 개발이다.

보리를 둘로 쪼개 가운데 검은줄 부분을 완전히 깍아없애 쌀알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할맥은 보통 보리쌀과는 달리 고랑이 제거되어 씹는 느낌이 부드러우며 밥을 지을때 수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쌀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얗게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건강보리쌀(할맥)은 이러한 분들께 좋다.

○보리혼식을 하고 있으나 보리혼식을 섞어하는일 부 손님들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요식업소나 구내식당 같은 대량급식처

○영양소의 고른 섭취를 위하여 보리혼식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입맛이까다로와 보리혼식을 못하시는 분

○보리를 많이 먹어보지 못한 청소년층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보리혼식을 해야하나 입맛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보리혼식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

근래에 와서 쌀밥위주의 식생활에서 밀려났던 보리쌀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인식되므로서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해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아진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慶尙南道 支部

支部長 金章憲
양산군 사무소장 지부장겸직
함양군 〃 金昌漢
거창군 〃 黃朝淵
고성군 〃 金正滿
김해군 〃 河正燮
울산시 〃 金正憲
울주군 〃 韓悟愚
마산시 〃 丁善昌
충무시 〃 李英甲
거제군 〃 全才鐸
밀양군 〃 李鍾守
산청군 〃 朴元來
삼천포시 〃 河百權
진해시 〃 姜信雄
의령군 〃 成耆壽
하동군 〃 李元碩
창원시 〃 金隱中
통영군 〃 金秀判

1985년 8월 15일